

권두언

아고라와 저널리즘에 관하여

임상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전에 읽은 적이 있는 정치 철학자 빌라(Dana Villa)의 글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전거를 찾지 못해 어떤 글 몇 쪽이라고 명기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간추려 적어본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렌트(H. Arendt)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발견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향유하였다. 지배나 강제는 부재하며 정치적 관계는 오직 말과 설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회든 아고라(agora)에서든 시민은 말 그대로 자유를 향유한다. 공공영역에서 시민은 동료 시민들에 의해 인정을 받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자유를 누렸다. 아테네 정치의 요체는 아렌트에 의하면 끊임없는 공적 담론의 정치이었다. 정치적이 된다는 것, 도시국가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말과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말, 바로 말 그것이 의미를 낳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었다.”

오늘 21세기에 와서도 우리는 이런 아고라와 공공영역을 회구한다. 현대의 민주주의자들은 신문 방송매체를 현대판 아고라와 공공영역으로 그리고 저널

* 고려대 명예교수. 언론학

리스트는 시민의 대리인(代理人)으로 자칭하고 간주한다. 시민 6,7만의 고대 아테네에서 일대일의 면대면(面對面) 대화로 이루어지던 직접민주주의가 현대 국가에서는 불가능해 졌다. 고대 아테네의 공공영역 혹은 아고라는 불가능한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대신 저널리즘 매체가 아고라로, 저널리스트가 시민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고라는 아고라이고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스트이다. 아고라와 대중매체, 시민과 저널리스트는 다른 것들이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같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문 방송이 아고라이고 저널리스트는 고대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에 앞서 우리는 이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고라가 있었지만 소크라테스(Socrates)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와 그곳에서의 대화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속에서 재판을 받았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에게 호소한 것은 정치적 토론과 판단은 사고(thought) 또는 도덕적 성찰을 대신할 수 없다는 급진적 개인주의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고와 성찰은 ‘아고라’ 혹은 공공영역에서 토론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아테네 최고의 민주주의 정치지도자 페리클레스(Pericles)와는 대척점에 서있다. 페리클레스가 그의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후 전몰병사를 추모하는 그 유명한 추도연설(the Funeral Oration)에 담겨있는 공중(public)이라는 가치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개인(private)의 자기심문(self-examination)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그의 「변론」에서 누누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psyche)을 돌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개인이 자신만의 사적인 영역에 머물 것을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독자로서의 개인이다. 적극적인 시민 그리고 정치적 연설 속에서 묻혀 사는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삶을 객관화하면서 보라는 것이 그의 충고이다. 소크라테스는 관습이나 다수의견에 지배받지 않는 시민들의 윤리적 감각을 계발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아고라와 공공영역의 한계를 읽고 그것들이 원래가 억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신문 방송과 같은 공론장은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억압적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억압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다. 권력의 망으로 덮여있다는 어느 현대 철학자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다. 그러나 그런 권력의 망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또 다른 현대 철학자의 말도 맞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앞의 철학자는 푸코(M. Foucault)이고 뒤의 철학자는 로티(R. Rorty)이다.

아마도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런 아고라 그리고 공중에 대해 가장 강렬한 회의론을 제기한 인사의 하나로 나는 리프만(W. Lippmann)을 생각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리프만은 그의 『여론』(Public Opinion)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를 끝내야 할 때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여론의 부조리와 변덕스러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환영의 공중』(Phantom Public)이란 저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중(public)은 ‘환영’이라고 말한다. 실체가 아니라 유명이라는 것이다. 리프만의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아고라는 유명들이 유희하고 유명이 만들어지는 놀이터라는 말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에게 아고라에서 정치적 연설에 혼을 빼앗기고 날뛰는 공중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심문에 철저한 회의적인 개인이 될 것을 충고하였다면 리프만이 전문가로서의 저널리스트 즉 엘리트 저널리즘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두 철학자 사이에는 공유하는 점이 상당히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들의 지금 문제이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리고 말과 설득만이 넘쳐흐르는 아렌트의 공공영역, 소크라테스의 회의적이지만 양심적인 개인주의, 리프만의 전문적이고 엘리트적인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우리 저널리즘 혹은 공론장의 당면 문제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말하자면 수없이 많다. 그 중에는 추상적인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도 있다. 하나씩만 이야기 해보자. 먼저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 기술이 저널리즘에 강제하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이다. 새로운 기술은 매체의 수와 종류를 거의 무한에 가깝도록 확대시키고 있다. 동시에 매체들 간의 통합을 낳으면서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인 저널리즘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 이른바 정체성의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들의 작업 대상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사실(fact) 혹은 실체(reality)를 다루었다. 뉴스는 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충실하게 기술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술은 실체와 허구, 원본과 모사간의 구분을 의미 없이 만들었다. 실체가 허구이고 허구가 실체인 세상이 되었다. 저널리즘의 실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게끔 되었다.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와 광고 사이의 영역 구분도 사라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세 혹은 변화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니체(Nietzsche)식의 “선악(善惡)의 저편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를 반(反)저널리즘 현상으로 부르고 싶은데 이런 반(反)저널리즘 현상-전통적 의미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제도적으로 다른 사회제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신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고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 자본, 기술, 저널리즘, 권력은 모두가 하나의 먹이사슬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예속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되었고 예속 시키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 문제라면 어떤 대안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고 희망할 수 있는가? 아렌트의 정치적 우애가 깊은 공공영역과 같은 공론장, 소크라테스의 공적 영역에서 벗어난 회의적이고 양심적인 개인, 리프만의 엘리트 저널리즘이 과연 노스텔지어아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이 이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못되는 것 같다. 아니면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요즘의 언론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야전의 소총수 같다. 작고 구체적인 표적을 대상으로 소총을 쏘는 일과 같은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자는 것이다. 거시적이거나 관념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것이 어쨌다는 것이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급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거시적이고 관념적인 이론 당위적인 주장은 헛소리이고 정치적 선동으로 들릴 뿐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 저널리즘이 당면하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문제의 하나인데 매체와 기자의 부패문제이다. 이 문제는 최근 어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현재 한국에는 기자의 수가 약 5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그래도 다소 수준급의 기자라고 할 수 있는기자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8천 명가량 된다. 그런데 이들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5만 명 가운데 대부분인 지방지 기자의 경우 월급 받는 기자들은 거의 없다. 각자 알아서 출입처이든 아니면 이권 부서에서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한다. 예를 들면 인구 1백만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지방도시이지만 신문이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이곳 사정도 마찬가지 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언론자유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나는 한참 전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저널리즘 교육을 하면서 졸업

후 신문사에 취직한 제자를 보고 참으로 죄의식을 느끼곤 한다. 그가 하는 일은 거의 신문을 강매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일이어서 기자인지 브로커인지 모른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저널리즘 교육을 하고 저널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서울의 경우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전국지 몇 곳을 제외하곤 중견 기자 월급이 1백만 원 정도인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 저널리즘 세계에 사이비 기자, 무급기자, 저임금 기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방송이라고 신문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기본 생활이 안 되는데 기자에게 저널리즘의 본분이 어떻고 기자 윤리가 어떻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1980년대 5공 시절 나왔던 프레스카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도 있는 것이다. 5공 때의 불행한 언론 통폐합을 낳은 구실이었던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로 언론사를 정리하는 그런 식의 일은 지금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으로 막막한 일이다.

이것이 부패의 한축이라면 다른 부패도 있다. 그것도 역시 돈 문제이다. 공론장 즉 매체의 수가 많아지니 매체들은 서로 경쟁을 한다. 저마다 관중이 모이는 공연을 해야 한다. 그래야 광고가 붙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TV에서 보는 것처럼 시청률은 최고 선(善)이다. 돈 되는 프로그램 즉 시청률이 높은 것은 무엇이든 무대에 올린다. 된 것 안 된 것 가릴 것 없이 말이다. 사실 뒤집어 보면 매체가 돈 버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돈 벌지 못하면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뒤쳐져서 생존해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쓸 수 없고 신문의 경우 취재도 불가능하고 좋은 글을 받지도 못한다.

이야기가 다소 거칠어지고 투박해졌다.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 하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현실을 어떤 이름을 붙여 명명(命名)하는

그러면서 정명(?)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식의 진단과 구호는 허언이고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지식인은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든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이론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것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장하곤 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요즘의 학문적 도덕가와 사회이론가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정교한 패키지로 묶어낸 후 정책을 기획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통상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 곳에서의 문제 해결이 한 종류의 고통을 제거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다른 종류의 고통은 증대시킨다. 모든 사회적 정책은 예견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공론장의 문제가 아마도 그런 것일 것이다.

나는 우리의 공론장과 기자의 부패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한 말은 아니다. 단지 이 부분 즉 부패가 심해졌다. 더구나 소위 공공영역으로서의 공론장을 정화해서 살려야 한다는 구호를 엮고 이런 부패라는 사회적 고통이 역설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을 조심스럽게 축소하려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서 말이다. 또 정치평론이란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이다. 또 아렌트의 공공영역,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저널리스트, 리프만의 엘리트 저널리즘은 목표나 방법 혹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꿈이나 선택지를 그려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옛날 신문의 칼럼 마지막에 부치는 흔한 인사가 있었다. 그것을 나도 이글 마지막에 부쳐 본다. (망언다사 妄言多謝)